

#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어투 용어에 관한 고찰

## -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을 중심으로 -

최정이 (충남대학교)

### 1. 연구목적

광복 이후 국어순화운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투 용어는 아직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네이버 국어사전 이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신조어가 ‘츄데레’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sup>1)</sup>, 이는 새침하고 통명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일본어 의태어인 ‘츄츄(つんつん)’과 ‘데레데레(でれでれ)’가 합쳐진 말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의 사용에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어순화운동 또한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순화운동이 실제 언어생활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의 사용실태 및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 2. 선행연구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어투 용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강신항(2002), 김순임(2009), 허재영(2015), 이덕배(2011), 황영길(2017), 안찬원(2017) 등이 있다.

강신항(2002)은 일본어투 순화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순화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으나 한국 고유어가 적고, 순화어가 일반 대중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순임(2009)은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수록된 1,171개 항목을 순화도 및 어원에 따라 한자어, 순수 일본어, 외래어로 분류하여 자료집에 제시된 순화도의 기준과 그 타당성을 재고하였고, 순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재영(2015)는 국어순화정책의 역사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시(告示)’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로 산출된 순화어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순화자료들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의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과 반복되는 순화어 고시로 인해 중복된 용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덕배(2011)은 한국어에 잔존하는 일본어의 실태 조사를 위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투 용어 123개 항목에 대해 설문지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조사범위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병역필 남학생이 미필 학생에 비해 일본어투 표현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찬원(2017)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어투 용어의 사용양상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어투 한자어 중에는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서 반드시 순화로 제시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순화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어투 용어의 분류나 분석, 인식조사, 일본어투 용어 자료집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고 본 연구와 같이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14)에 제

1) 2016년 12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 「올해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1위 신조어는 ‘츄데레」  
(<https://www.mk.co.kr/news/it/view/2016/12/893349/검색일-2016.12.30>).

시된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가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기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2015년과 2020년 각각 1년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김순임(2009)를 참고로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14)의 용어들을 다음 [표-1]과 같이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가장 최근의 순화어 자료집인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14)에 수록된 1,157항목을 유입된 형태와 자료집에 제시된 순화도에 따라 첫째, 일본 한자어, 둘째, 순수 일본어, 셋째, 일본식 외래어, 넷째, 한국어와 일본어가 결합된 혼종어로 분류하였고, 혼종어는 한국어와 순수 일본어의 혼종어, 한국어와 일본식 외래어의 혼종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표-1] 국립국어원(2014) 수록 용어의 유입형태 및 순화도에 따른 분류

유입형태 \ 순화도	반드시 순화	가급적 순화	병용	합계
한자어	103	233	96	432
순수 일본어	476	5	0	481
외래어	192	11	2	205
혼종어 (韓+日)	32	1	2	35
혼종어 (韓+日外)	4	0	0	4
합계(개)	807	250	100	1,157

위와 같이 분류한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1년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1년간 작성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기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유입형태가 더 많이 쓰이는지,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각각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의 특징을 고찰 하겠다.

### 4. 포털사이트에 나타난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사용실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과 2020년 각각의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의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1 한자어

한자어로 들어온 것은 ‘입금(入金), 익일(翌日)’ 등 총 433개로 반드시 순화 103개, 가급적 순화 233개, 병용 96개로 분석 결과 반드시 순화 103개 중에서 순화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은 2015년 83개, 2020년 78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급적 순화는 ‘간식, 할인’ 등 반 이상이 일본어투 한자어가 더 많이 쓰였다. 가급적 순화 223개 중 일본어투 한자어가 더 많이 쓰인 것이 2015년 132개, 2020년 131개로 나타났다. 병용도 마찬가지로 96개 중에서 일본어투 한자어가 더 많이 쓰인 용어가 2015년 76개, 2020년 77개로 나타났다.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가 같은 횟수로 쓰였거나 둘 다 안 쓰인 경우가 있었다. 2015년에는 가급적 순화에서 같은 횟수로 쓰인 것이 1개, 병용에서 둘 다 안 쓰인 것이 1개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같은 횟수로 쓰인 것은 없고, 둘 다 쓰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순화에서 4개, 가급적 순화에서 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십팔번(十八番)’의 순화어로 제시된 것이 ‘단골 장기, 단골 노래’인데 이는 둘 다

20회 전후의 낮은 빈도수인 것에 비해 ‘애창곡’의 경우 2015년 2792회, 2020년 2780회로 나타나 다른 용어가 더 널리 쓰이는 예시 중 하나다.

## 4.2 순수 일본어

순수 일본어로 들어온 것은 총 480개로 순화도는 반드시 순화가 476개이고 가급적 순화 5개, 병용은 없었다. 분석 결과 일본어 그대로 들어온 용어가 순화어보다 많이 쓰이는 경우는 적었으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었다. 2015년 기준 19개, 2020년 기준 31개를 제외하곤 순화어가 더 많이 쓰였다. 일본어 그대로 들어온 용어가 순화어보다 많이 쓰이는 경우는 ‘모나카, 소바, 우동’ 등 주로 음식이름으로 나타났다. 순화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는 ‘간지, 모치, 사시미, 스시, 와사비’ 등이 있었다.

같은 횟수로 쓰인 것은 2015년 반드시 순화에서 3개, 2020년 반드시 순화에서 2개, 둘 다 안 쓰인 것은 2015년 반드시 순화에서 5개, 2020년 반드시 순화에서 51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둘이 같은 횟수로 쓰이거나 일본어투 용어가 더 많이 쓰인 것은 ‘나메(얇게 치기 <당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오텡’의 순화어로 제시된 ‘꼬치(안주)’는 ‘오텡’만을 특징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꼬치(안주)’는 ‘오텡’의 순화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보통 ‘오텡’의 대체어로 많이 사용하는 ‘어묵’으로 검색해 본 결과 ‘오텡’이 2015년 기준 1,595회 나타난 것에 비해 ‘어묵’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11,818회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것도 순화어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본다.

## 4.3 외래어

일본식 외래어로 들어온 것은 총 205개로 순화도는 반드시 순화가 192개, 가급적 순화 11개, 병용은 2개로 분석 결과 반드시 순화에서는 ‘고로케, 샷시’ 등 2015년 10개, 2020년 13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순화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화어가 덜 쓰이거나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모두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고 대신 다른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둘째, 영어 외래어로 들어온 경우와 중복되어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같은 횟수로 쓰인 것은 2015년에는 없었고, 2020년 4개로 나타났다. 둘 다 안 쓰이는 것은 2015년 반드시 순화에서 13개, 2020년 반드시 순화에서 11개로 나타났다.

## 4.4 혼종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혼종어는 ‘모치떡, 전기다마’ 등의 총 35개로 순화도는 반드시 순화가 32개, 가급적 순화가 1개, 병용은 2개, 한국어와 일본 외래어의 혼종어로 들어온 것은 총 4개로 순화도는 반드시 순화가 4개로 가급적 순화와 병용은 없었다. 분석 결과 2015년과 2020년 모두 각각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순화어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횟수로 쓰인 것은 없었으며, 둘 다 안 쓰인 것은 2015년, 2020년 모두 반드시 순화에서 5개씩 나타났다.

한국어와 일본 외래어의 혼종어로 들어온 것은 총 4개로 순화도는 반드시 순화만 4개로 가급적 순화와 병용은 없었다. 4개 중에서 순화어가 많이 쓰이는 것이 2015년 3개, 2020년 2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는 순화어 ‘보온병’으로 널리 쓰이는 ‘마호병(魔法瓶)’은 2015년 기준으로 빈도수가 0회인데 반해 2020년 기준 91회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옛 추억을 즐기는 레트로 감성의 유행으로 기업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로 옛날에 사용하던 일본어투 용어가 다

시 언급되면서 빈도수가 늘어난 예이다.

[표-2] 2015년, 2020년 전체 비교표

순화도 유입형태	일본어투 용어 <sup>2)</sup>						순화어 <sup>3)</sup>					
	반드시		가급적		병용		반드시		가급적		병용	
조사 연도	15년	20년	15년	20년	15년	20년	15년	20년	15년	20년	15년	20년
한자어	20	22	132	131	76	77	84	78	100	99	19	19
순수 일본어	16	27	3	4	-	-	412	396	2	1	-	-
외래어	10	13	5	5	1	1	167	164	6	6	1	1
혼종어(韓+日)	1	2	1	0	2	2	26	25	0	1	0	0
혼종어 (韓+日外)	1	0	-	-	-	-	3	4	-	-	-	-
합계	48	64	141	140	79	80	692	667	108	107	20	20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자어로 들어온 것은 일본어투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순수 일본어나 일본식 외래어는 대부분이 순화어나 다른 어휘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순화도가 반드시 순화인 용어는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 둘 다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앞에서 분석한 일본어투 용어와 순화어의 사용실태를 [표-2]와 같이 정리한 결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마호병’과 같이 유행으로 인해 갑자기 빈도수가 변화한 일본어투 용어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로 대부분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14)의 일본어투 용어를 분류하고 2015년과 2020년 각각 1년간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해 분석,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어순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일본어투 용어의 실태 및 원인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사용실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다시 사용되는 어휘가 일부 존재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쓰이지 않는 일본어투 용어나 순화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순화어 자료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화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일본어투 용어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조금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순화어나 다른 대체 어휘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신의 순화집에는 실려있을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순화어가 적게 쓰이는 경우와 많이 쓰이는 경우 모두 문제점이 존재했다. 단순히 순화어보다 일본어투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순화어가 사용하기 낯설거나 불편하고, 원래 어휘의 의미와 맞지 않는 순화어인 경우도 있었다. 순화어가 더 많이 쓰인 경우에도 순화어의 의미가 광범위해서 빈도수가 높게 나오거나 원래 어휘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최신의 순화어 자료집에 불필요한 어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각 어휘의 인지도, 이해도, 사용률을 조사하는 등의 사전 조사와 순화어 선정 방식의 개선 및 새로운 최신 일본어투 용어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일본어투 용어의 사용실태 및 어휘 이해도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하겠다.

2)순화어보다 일본어투 용어가 더 많이 쓰인 경우

3)일본어투 용어보다 순화어가 더 많이 쓰인 경우